

보도 일시	2022. 7. 27.(수) 09:00	배포 일시	2022. 7. 27.(수) 09:00
담당 부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복원협력과	책임자	과장 박승준 (062-601-4221)
		담당자	사무관 정승강 (062-601-4223)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총사업비 증액해 본격 추진

- 총사업비 466억 원으로 증액 확정, '22년 11월 설계 마무리, '23년 3월 착공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총사업비를 466억 원으로 증액하고 본격적으로 복원공사를 추진한다.

2019년 8월에 발족한 추진단은 범시도민복원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해 필요한 추가 공사비와 신규 전시콘텐츠 비용을 확보하기로 결정하고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총사업비 조정절차(타당성 재조사, '20년 9월~'22년 6월)를 거쳤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옛 전남도청 복원에 드는 총사업비를 기존 255억 원에서 466억 원으로 211억 원 증액 확정해 최종 반영했다.

*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광주·전남 46개 시민단체(2016. 9. 30. 설립)

이에 따라 추진단은 그동안 중단했던 옛 전남도청 건물 6개 동에 대한 복원 설계를 올해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와 입찰 과정 등을 거쳐 '23년 3월부터 현장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진과 서사, 영상과 관계자 구술 등을 계속 확보하고 취득한 자료를 교차 검증한 후 '23년 하반기에는 전시기획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5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옛 전남도청을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로서 민주·인권·평화 등 역사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자 현장 교육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